

파견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파견대학	국가	스페인
	대학명	말라가대학교
파견기간	2024년 1월 ~ 2024년 7월	
프로그램	■ 정규 □ 학기제	
	※ 파견대학 수학 전공:FACULTY OF SOCIAL STUDIES AND WORK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 유학생 보험

유학생 보험은 인터월드라는 사이트에서 조건별 보험 금액과 보장항목을 비교하여 한화손해보험을 출국일부터 6개월간 가입했습니다. 해외 체류기간동안 보장기간이 커버되어야합니다.

-비자

가장 준비하며 신경썼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단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최대한 빠르게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서류 준비사항을 인터뷰일까지 빠짐없이 챙겨야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스페인 비자 준비 관련 글들을 많이 참고해서 준비했습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을 우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항공권

항공권은 편도로 구입했으며, 학생 할인을 받아서 출국 할 때 69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한국 귀국 할 때에는 성수기라서 90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국제학생증으로 학생인증을 하여 무료 수화물 추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국제학생증을 무료로 발급해주는 기간이 한 학기에 한번씩 있습니다. 이 때에 발급받아 항공권 및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려요.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봄학기에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겨울옷은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경량패딩이랑

가디건, 맨투맨 정도 챙기고 여름옷도 스페인에서 구입할 생각으로 많이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기 전까지 기온이 많이 높지 않아서, 4월까지의 가을 옷을 입었습니다. 2월에는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겨울 옷을 좀 들고 가길 추천드리고 스페인은 1월과 7월이 전체 브랜드 세일기간이라 1월 중순쯤 출국하신다면 스페인에서 겔옷을 저렴하게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캐리어가 좀 많이 비어서 각종 한식 재료들과 생필품을 챙겼습니다. 가격이 한국보다는 비싸긴하지만, 한인마트가 3~4개 정도 있어서 현지에서 조달도 가능하니 짐이 많다면 음식은 많이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스페인에서 구하기 힘든 한식 재료는 육수 코인이었습니다. 이걸 갖고 갔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나머지 한식 재료는 마트에 많아요! 저는 밥솥을 챙겨갔는데, 메르까도나라는 스페인 마트에 햇반 같은 즉석밥이랑 냉동 즉석밥을 팔아서 밥솥은 굳이 안챙겨가도 될 것 같아요!!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개방적이고 사람들이 대체로 밝고 친절합니다. 길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다들 흔쾌히 도와주시며 스페인에서 만난 거의 모든 스페인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마트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서 다양한 재료로 자주 집에서 요리해먹었습니다. 과일을 많이 많이 드시고 오세요! 유제품이랑 고기도 훨씬 스페인이 저렴합니다! 외식 물가는 한국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라 외식보다는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스페인 문화, 언어에 관심이 생겨 대학생 기간 중에 꼭 스페인 교환학생을 가서 언어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고 싶어서 말라가대학을 선택했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말라가는 공항과 시내가 가까운 편입니다. 또한 말라가 안에서 사용하는 Renfe 정기권을 사용하면 10유로로 3달간 자유로이 공항과 시내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저는 말라가에 처음 도착해서 Renfe를 이용해 시내로 갔고 10분 안에 공항에서 시내로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티켓을 따로 안사고 트래블월렛카드로 결제해서 2유로 정도에 갈 수 있었습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말라가 대학교에서 수강신청 안내사항을 이메일로 미리 보내줍니다. 출국하기 전 12

월쯤에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처럼 수강신청이 치열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비교적 빠르게 마감되어 미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한국 교환학생 대상으로 따로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아 Idealista라는 어플을 통해서 방을 구했습니다. 3명이서 한 집을 공유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6개월간 지냈습니다. 출국 전에 어플을 통해 집을 알아보고 집주인과 연락을 한 후에 스페인에 도착하여 집을 직접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나-5. 교내·외 활동

말라가 대학교에는 ESN이라는 교환학생을 위한 행사를 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환학생 환영파티, 각종 행사, 여행등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MSE라는 교환학생 대상 여행사에서도 각종 행사 주최 및 여행등 행사가 많아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동아시아 학과 친구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동아시아 학과 수업을 듣는다면 스페인 친구들과 친해지기 더욱 좋습니다.

버디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친구를 사귄 수 있습니다.

개강 전에 말라가 대학 어학당을 2주정도 다닐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친구들을 사귀고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만들면 지하철, 버스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0.33유로, 버스:0.5유로). 버스 월정액권 카드인 EMT카드보다 버스와 지하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또한 Renfe를 탈 때에도 10유로 3개월권을 만들어서 타면 정말 저렴하게 시내와 공항을 오갈 수 있습니다.

3. 여행 정보 (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학기 중 부활절 기간 2주간 학교를 가지 않아서 이때에 스페인 북부 여행과 프랑스, 헝가리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학기 중간에도 티켓이 저렴한 때에 맞춰 여행을 종종 다녀왔습니다. 저는 특히 스페인 북부에 있는 산세바스티안이라는 도시가 좋았습니다. 남부와는 다른 느낌의 바다에 색다른 음식들과 평화로운 분위기가 매료되어서 언젠가 꼭 다시 가고 싶습니다. 스페인 남부 도시들은 버스를 타고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날짜만 잘 맞춘다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나라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남부 여행은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6월 전) 여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졸업, 취업이 늦어지는 것이 걱정되어서 교환학생을 갈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녀온 후에는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스페인어도 현지에서 배우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배우고 즐겼습니다. 정말 전혀 후회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저에겐 비용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는데, 휴학 후 인턴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다양한 장학금을 신청하여 비용을 모아갔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많은 교환학생 장학금을 꼭 신청해서 더욱 여유롭게 교환학생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